



# 영국 브렉시트(Brexit) 우려와 해외 보험사업에 대한 영향

김진억 수석담당역

■ 영국 총선 결과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공약으로 내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질 전망이다.

-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Prime Minister David Cameron)는 ‘2017년 말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5월 7일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sup>1)</sup> 실시가 확실시 되고 있음.
  - 한편 2017년에는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영국으로서는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타 유럽 국가의 정치적 이슈와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음.
  - 영국 경제연구소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총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등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기타 EU 국가들에게도 짐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영국 브렉시트 문제는 최근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당장 2016년 1월에 시행되는 유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기준인 솔벤시II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영국 보험산업의 영향력 감소가 전망됨.

- 영국의 EU 탈퇴 시나리오는 EU 시장에 제한적 접근이 가능한 “제3국” 지위를 얻는 시나리오와 공식적인 투표권은 없으나 모든 EU 규정을 적용받으며 EEA<sup>2)</sup>의 회원으로 남는 시나리오가 있음.
  - 어떤 경우든 정치적인 영향력은 없고 EU 규정만 적용받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브렉시트로 인

1) 경제위기로 인해 타 EU 국가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이주자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이들도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림에 따라 영국인들의 반(反) EU 정서를 자극해 브렉시트가 대두되어 왔으며,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2017년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공약으로 함.

2)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유럽연합(EU)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을 말함.

해 영국 보험산업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그동안 영국이 영국 보험산업에 유리하게 솔벤시Ⅱ 등의 제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이며, EU 규정 제정에 대한 영향력 감소는 영국 보험회사의 주력 보험 상품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동안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던 영국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은 리스크를 기반한 솔벤시Ⅱ를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논란은 직접적으로 EU시장 접근이 자유로웠던 영국 보험회사들의 영업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과정과 국민 투표 등의 과정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영국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영국 보험회사들은 EU에서 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규모가 크며, 이는 그동안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별도의 개별 보험사업 면허 없이 여타 EU 보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임.
- 만약 브렉시트로 인해 로이드 등 금융그룹들이 EU 주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면 영국내 보험사업의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또한 EU주재 자회사의 설립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영국 보험자회사의 지속여부가 중요하게 이슈화될 수 있음.
- 로이드 보험회사들은 브렉시트 현실화가 런던에서 인수되는 유럽관련 보험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로이드는 2013년 총보험료 중 약 15%를 영국을 제외한 유럽지역에서 거수하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개별 국가로부터 신규 보험영업 면허를 받아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유럽에서의 보험판매에 근본적인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수년간에 걸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 여부, 시기, 실행방법, 실행형태 등에 대한 정치적 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자체가 영국 금융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영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불확실성은 국제적인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보험회사의 유럽 보험사업 영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의 동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A.M. Best, 연합뉴스 등)